



10 단계 : 타종교와의 대화

“타종교와의 대화”

마 5 : 43 - 48

2011. 9. 7 (수), 9. 10 (토) 강사: 박원호 목사 (주님의교회 담임)

1. 종교의 본질 : 표층 종교와 심층 종교

- 1) 자신을 잘 되게 하려고 애쓰 $\leftrightarrow$ 자신을 부인하며 남을 생각함.
- 2) 무조건적인 믿음 강조 $\leftrightarrow$ 나를 얹메고 있는 선입견이나 고정 관념에서 벗어나 지금의 내가 죽고 새로운 나로 태어나려고 함.
- 3) 신은 하늘에 있고 인간은 땅에 있음 $\leftrightarrow$ 초월적인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
- 4) 신을 내 밖에서 찾으려고 함 $\leftrightarrow$ 내 속에 있는 진정한 나를 찾으려 함.
- 5) 신앙적 경험에 대한 문자주의 $\leftrightarrow$ 상징적, 은유적, 유추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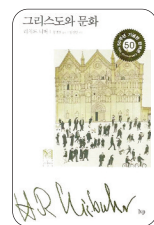
2. 타종교에 대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가?

1) 리처드 니버의 “그리스도와 문화”

Against, Above, In, Of, Transformer

대립? 정복? 혼합? 병행?

2)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의 나라 (교회 왕국)



■ 그리스도와 문화

3. 토착화와 혼합주의

기독교가 다른 문화에 전파될 때,
반드시 토착화 또는 혼합주의의 과정을 거치게 됨.

1) 토착화 : 기독교의 정체성을 지킴

2) 혼합주의 : 정체성이 심각하게 훼손 됨

조직의 정체성 상실 (다른 종교와 조화적 상대화를 이룸)

또는 종교인들의 정체성 상실 (자신의 신앙을 바꾸거나 일치시킴)

예) 그리스도가 여러 신적 존재 가운데 하나

또는 이상적인 인간 또는 위대한 혁명가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려는 모든 사람들의 지도자.

간다: “하나의 카스트, 하나의 종교, 하나의 신!”

a) 공생적 혼합주의 :

아프리카 (전통종교는 하부구조, 기독교는 상부구조)

b) 합성적 혼합주의 :

수평적 만남(태국의 불교나 한국의 통일교)

4. 캐톨릭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Extra Ecclesiam Nulla Salus)

제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에는 새롭게 이해 됨.

“교회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 밖에 있는 것이 무엇이나?” 라고 물어야 한다.

하나님은 사람이 구원 받기 원하시기 때문에 여기에는

밖(extra)은 없고 오직 하나의 안(intra)만 있다.

하나님의 구원은총이 세계 역사 속에서도 일어난다고

이해될 때 비로소 타종교와의 대화가 가능하게 됨.(한스 쾅)



■ 한스 쾅(Hans Küng)

* 다른 종교들은 근본적으로 사탄 활동의 표출이므로 철저히 이들을 배격하고 대화를 거부해야 한다?

다른 종교와의 대화를 한다함은,

종교와 사람을 구분하는 것.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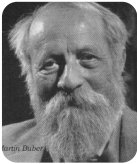
5.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상대주의에 빠지지 않는 길은 없는가?

마이어(H. Meyer),

“다른 신앙을 가진 자들에게

한 거지가 다른 거지에게 어느 곳에 가면 빵을 얻을 수 있는지를,

병에서 나온 자가 다른 환자에게 어디에 가면 훌륭한 의사가 있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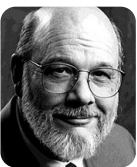


■ 마틴 부버 (M. Buber)

지를, 그리고 처벌에서 풀려난 자가 다른 피의자에게 어디에 가면
공정한 재판관이 있어서 풀려날 수 있는지를
말해주는 것과 같이 해주는 것이 올바른 대화”

“ 진정한 대화는, 대화의 상대방에게 자신의 확신을 동의하도록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에게 동의하는 것이며 서로 양자가
협상하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의 뜻에 호의를 가지고 그를
이해하려는 것이다.” (M. Buber)

“ 상대방은 개종시키기 위한 수단이나 미끼가 아니며,
편안한 담소와 대답도 아니다.
왜냐하면 대화는 상대방의 인격에 대한 존경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결코 될 수 없으며,
동시에 자신의 정체성(identity)을 포기하는 것도 아니라,
진실하고 진지하게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증언이기 때문이다.”



■ 제임스 파울러 (J. Fowler)

“개방적인 확신”(J. Fowler)

유세비우스, ‘The Life of Constantine’ 에서,
“하나님께서서는 제국의 힘을 통해 원수를 정복하셨다.
콘스탄틴의 원수는 하나님의 원수이다.”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기독교 왕국(Christendom)
영역	세상의 모든 영역과 일	교회
생명에 대한 관심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생명 이며 구원 받아야 함	하나님은 주로 기독교인만 관심
성도	세상 속에서의 사명자 (메시아)	교회의 일꾼
목사와 평신도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	구분이 있음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세상을 위해 존재	교회 왕국 확장이 주된 관심
길	십자가의 길 (섬김과 헌신)	힘과 재물
중심 정신	의, 평화, 기쁨	충성, 헌신, 전도
역사의 주인	하나님	힘 있는 자들
구원	현재의 세상 회복	죽고 난 뒤의 세상
교회와 교회 간의 갈등	전혀 없음	심함
믿음	사명	개인 축복
성령	모든 분야에서 역사	기독교의 전유물